14강 자본주의와 인간

1. 부르디외와 아비투스

1.1 부르디외

◇ 피에르 부르디외(1930-2002)의 아비투스(Habitus)

→ 영어 Habit과 같은 어원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1.2 로빈스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발견한 희망!

> ◇ 갑자기 나에게 너무나도 자명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은 시간과 싸워야 한다는, 다시 말해서 시간을 포로처럼 사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이다. 내가 그날그날 목적 없이 살고 되는대로 내버려 두면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고 나는 나의 시간을 잃는다. 나 자신을 잃는다. 결국 이 섬 안에서의 모든 문제는 시간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맨 밑바닥부터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곳에서 마치 시간의 밖에서처럼 살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의 달력을 재정립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되찾은 것이다.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 처음 추수한 밀과 보리의 어느 한 알도 현재 속에 탕진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송두리째 마치 미래를 향한 용수철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두 가지 몫으로 나누리라. 그 첫 번째 몫은 내일 당장 땅에 뿌려질 것이고 두 번째 몫은 안전을 위해 비축될 것이다. 왜냐하면 땅 속에 뿌린 씨앗의 약속이 허사가 되는 일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 축재하라!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다시금 나의 비참한 고독이 상기된다! 나에게 있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좋은 일이며 추수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곡식을 찧고 반죽을 익힐 때 괴로움은 시작된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오직 나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메리카의 식민은 끝까지 계획된 과정을 후회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빵을 팔 것이고 그가 금고 속에 쌓아두게 되는 돈은 축재한 시간이요, 노동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의 경우 나의 비참한 고독은 내게도 부족하지 않는 돈의 혜택을 박탈해 간다! 나는 오늘날 돈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제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얼마나 미쳤으며 그 짓이 얼마나 못된 짓인지를 헤아릴 수 있다. 돈은 합리적인 -계량할 수 있으므로- 동시에 보편적인 -돈으로 치환된 부는 만인에게 접근 가능한 잠재력을 지니므로- 차원을 제공함으로써 그것이 접촉하는 모든 것을 정신적인 것으로 만든다. 매매 가능성은 근원적인 미덕이다.『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에서 미셸 투르니에(Michel Tournier: 1924-)는 다니엘 디포(Daniel Defoe: 1660-1731)가 지은『로빈슨 크루소(The Life and Strange Surprising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of York)』를 패러디한다.

→ 투르니에가 시도한 패러디의 핵심은 소설의 주인공으로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라 '프라이데이(Friday)', 그러니까 '방드르디(Vendredi)'를 캐스팅한다는 데 있다.

→ 다니엘 디포의 소설이 로빈슨의 이야기, 그러니까 주체 중심적인 이야기였던 사실이었다는 점과 구별되는 점이다.

◇ 어떤 사람이라도 특정 사회에 태어나서 적응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사회적 구조, 부르디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비투스(Habitus)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무인도에서의 표류는 로빈슨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살았던 영국이란 공동체, 왕정과 자본주의 그리고 청교도의 정신이 지배했던 특정 공동체가 자신에게 각인시킨 아비투스를 성찰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2. 구조주의와 실존주의

2.1 구조주의

◇ 구조주의는 구조화된 구조를 말한다.
◇ 아비투스 = 구조화된 구조 + 구조화 시키는 구조
◇ 새로운 구조를 갖출 수는 있지만 본래 갖추어진 구조가 있어야 한다.
◇ 타자와의 만남이 기존의 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

2.1 실존주의

◇ 실존주의-**사르트르** VS 구조주의-**레비스트로스**
◇ 사물은 본질이 먼저 온다.
→ 인간은 존재가 먼저 오고 본질이 나중에 온다.
◇ 인간은 능동체
→ 인간은 사물과 달리 나 스스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 후기 자본주의 - 인간은 능동 + 수동

3. 자본주의적 인간

3.1 전자본주의적 인간 vs. 자본주의적 인간, 그 시간의식의 차이

> ◇ 미래를 가능성의 장으로 표상하는 것은 확실히 전자본주의 경제에는 낯선 것인데, 이 장에서는 사물을 탐구하고 제어하는 것이 계산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자주 오해하는 바와 같이, 농민은 먼 미래를 목표로 할 줄 모른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미래를 수중에 넣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불신은, 대개 수년에 걸쳐지는 시간의 차원 속에서 좋은 수확을 배분하기 위해 필요한 예견과 항상 공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접재(매 순간 직접적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재화로서 농민을 둘러싸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 안정을 확실히 보증하는 소비재)의 일부분을 미래의 소비를 위해 떼어두는 축적은, 직접적으로 인지된 현재 속에 잠재적으로 숨겨진 <올 것>의 표적을 전제한다. 반대로 그 자체로는 어떤 만족의 원천도 되지 않은 채 직접재의 생산에 협력할 수 있는 간접재의 축적은, 계산에 의해 구성된 <미래>와의 연관하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 전자본주의적 경제 행위는 전통을 구성하는 축적된 모든 경험들에 의해 설정되거나, 경험 속에서 직접적으로 포착된 <올 것>을 지향하게 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농민은 전년의 전답에서 획득된 소득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지, 기대되는 소득에 따라 지출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과잉의 수확이 있을 경우, 농민은 여분의 밀이나 보리를 직접재로 취급하여, 그것들을 파종하여 미래 수확의 희망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소비를 위해 축적하기를 선호하며, 미래의 소비를 위해 미래의 생산을 희생하는 것이다. 예견의 행동은 기획된 미래의 전망적 표적에 의해 규정되기는 고사하고, 이어받은 모델에 일치시키려는 관심에 따르게 된다.『자본주의의 아비투스』

◇ 전자본주의적 인간에게 '미래'란 가능성의 장이 아니라, 단순히 '잠재적으로 올 것'으로 이해된다.
→ 전자본주의에서 시간이란 무한한 순환으로 표상되는 것이다.
◇ 부르디외는 화폐의 힘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화폐는 첫째로 확정되지 않은 용도를 예정하게 해주고, 사용의 무한정성을 수량화하게 해준다. (…) 둘째로 일정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한 금액을 상이한 용도에 배분하려고 할 때, 그 배분은 상호배타적이라는 사실로 인해 제한된 양의 돈을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우선 가용한 수단들의 한계 속에서 가능한 미래의 용도를 결정하는 계산을 전제하며, 다음으로 상호양립이 가능한 미래의 용도들 가운데서 서열화된 목적들의 구조와 관련되어 <합당한> 선택을 결정하는 계산을 전제하는 것이다."

4. 전자본주의적 인간

3. 전자본주의적 인간의 사유세계

◇ 농민은 자신을 미지의 세계에 맞서는 능률적인 역량으로 자처하지 않는다. 별로 개조의 손길이 가해지지 않고 인간 행위의 흔적이 거의 없는 자연에 매우 가까운 존재로서, 농민은 제어할 생각을 하지 않는 자연의 힘 앞에서의 복종을 견뎌낼 수밖에 없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진정한 의미의 <노동>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이 만능의 자연을 원자재로 취급하기를 거부하는데, 이 자연을 그의 믿음이 위신과 신비로 가득 채우며, 그것은 모든 재앙과 은혜의 원천이며, 확산되고 비인격적인 성스러움의 장소이다. 농민은 고유한 의미로 볼 때, 노동하지 않는다. 그는 고생할 뿐이다.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다. "땅에게 (너의 땀을) 주어라, 그것이 너에게 주리라." 자연은 증여라는 교환의 논리에 복종하여, 자기의 수고를 공물로 바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푼다고 말해져 왔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기술적 행위는 재생 의례의 한 형식일 수 있다. 사실 농업 활동의 기술적 측면과 의례적 측면 사이의 구별을 부각시키는 것은, 농민의 경험에 미지의 범주를 적용하는 것이다. 경작이나 수확 같은 농업 작업은, 그것이 박자를 정하는 우주적 주기의 내부에서 달성되기 때문에 전통적 의무의 전제적인 엄격함과 함께 부과되며, 전통적 의무와 불가분한 의례들도 마찬가지로 부과되는 것이다. (…) 카빌의 농민의 생활은 신화와 의례의 달력이 설정한 구분에 의해 리듬을 갖게 되는데, 이 달력은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신화적 대립의 체계를 계기의 질서 속에서 투영한 것에 불과하다. 가을과 겨울은 봄과 여름에 대립되는데, 이는 습한 것이 건조한 것에, 낮은 것이 높은 것에, 추운 것이 더운 것에, 왼쪽이 오른쪽에, 서와 북이 동과 남에, 남성이 여성에 대립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경작과 파종은 수확과 탈곡에 대립되며, 경작과 유사한 직조는 도기의 굽기에 대립된다. 시간적 계기의 조직화 원리는 성별 노동의 분업을 결정하는 원칙과 같다. 그리고 동일한 원칙이 습한 계절의 음식과 건조한 계절의 음식 사이의 구별을 결정하고, 축제·의례·놀이·노동 같은 사회생활의 순환을 결정하며, 공간과 여타의 특성의 조직을 결정한다. 이와 같이 연속되는 두 개의 시간적 계기는 비시간적 관계의 두 개의 대립된 항목으로 귀결될 수 있다.『자본주의의 아비투스』

◇ 전자본주의 세계에서 인간의 노동은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거대한 운동의 일환으로 사유된다.

→ 내가 자연에게 수고를 제공하고, 자연은 그 대가로 나에게 수확물을 내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본주의적 세계에서 자연세계는 일종의 신적인 무엇으로 표상될 수밖에 없다.

◇ 전자본주의적 인간은 자신의 노동을 우주적 질서에 참여하는 하나의 의례나 의무로 경험하게 된다.

→ 그들은 자연을 강탈하는 능동적인 행위인 노동을 자연의 선물을 기대하는 수동적인 행위로 착각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